“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사 구원을 베푸시리라”

가자지구, 하마스 반대 시위 3일째… ‘국민은 하마스의 몰락을 원한다’

가자지구에서 하마스를 반대하는 시위가 3일째 이어지며, 가자시와 칸유니스 등 여러 도시로 확산되고 있다고 CBN뉴스가 27일 보도했다. 시민들은 하마스에 대한 분노를 거리에서 표출하며, 전쟁과 고통의 책임을 하마스에 묻고 있다.

이번 시위는 북부 도시 베이트라히야에서 처음 시작돼, 수도 격인 가자시와 과거 하마스의 중심지였던 칸유니스 등으로 퍼졌다. 시위대는 “하마스는 나가라!”, “국민은 하마스의 몰락을 원한다!”는 구호를 외치며, 장기전으로 인한 고통을 더는 감내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

가자 주민인 자베르 사에드(Jaber Saed)는 현지 언론을 통해 “우리는 이제 지쳤고, 너희를 원하지 않는다. 끝났다. 우리는 너희에게 충분한 기회를 줬지만, 결국 너희도 세상의 다른 집단들처럼 우리를 실망시켰다. 우리는 우리와 아이들을 위한 품위 있는 삶을 원한다”고 하마스를 강하게 비판했다.

또 다른 시민 아티아 알-바라위(Atia al-Barawi)는 전쟁으로 15세 아들을 잃은 뒤 “하마스가 우리를 파괴했다”고 외쳤다.

이스라엘 방위군 예비군 병사 야이르 핀토(Yair Pinto)는 이러한 시위 소식에 대해 “아주 오랜만에 들은 가장 좋은 소식”이라며 이번 움직임이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하마스는 팔레스타인 민간인들을 인질로 삼고, 그들을 인간 방패로 이용해 지난 20년 넘게 세뇌해 왔다. 이제 시민들이 직접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 이스라엘 카츠(Israel Katz)도 가자 주민들에게 하마스에 맞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베이트라히야 주민들처럼, 다른 시민들도 하마스의 퇴출과 인질 석방을 요구해야 한다. 그것만이 전쟁을 멈출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하마스의 10월 7일 공격을 지지하는 팔레스타인인의 비율이 57%에서 39%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스라엘은 군사적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베냐민 네타냐후(Benjamin Netanyahu) 총리는 “하마스가 인질 석방을 거부할수록, 우리는 더 강하게 압박할 것이다. 여기에는 가자 내 영토 점령도 포함된다”고 경고했다(출처: 복음기도신문 종합).

성실이 없어지므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이사야 59:15-16)

하나님, 오랜 전쟁으로 지친 주민들의 하마스에 대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가자지구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사람에게서 진정한 정의를 찾을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지금의 사태가 정치적, 군사적 문제를 넘어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이어지도록 일하여 주소서. 가자지구의 적은 무리인 교회가 주의 완전하신 공의로 구원을 베푸신 십자가 복음을 그 땅에 전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구원의 기쁜 소식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에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한주간 긴급기도 [소그룹1]

▲ 중국, 6개월 만에 '대만포위' 훈련…"통제권 탈취·요지 봉쇄 연습"

중국군이 1일 육·해·공군과 로켓군을 동원해 대만을 포위하는 형태의 합동 훈련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스이 중국인민해방군 동부전구 대변인은 "1일부터 동부전구는 대만 섬 주변에서 함선·군용기가 여러 방면에서 대만 섬에 접근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해군·공군의 전투준비·경계순찰 연습과 종합적 통제권 탈취, 해상·육상 타격, 요충지·도로 봉쇄 등 과목을 중점 연습해 전구 부대의 합동 작전 및 실전 능력을 검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는 '대만 독립' 분열 세력에 대한 엄중한 경고이자 강력한 억제로, 국가 주권과 국가 통일을 수호하는 정당하고 필요한 행동"이라고 덧붙였다. 동부전구는 '접근'(進逼)이라는 제목의 포스터를 공개하며, 대만 지도를 둘러싼 전투기·군함과 함께 "'대만 독립'이라는 사악한 행동, 스스로 지른 불에 타 죽을 것"이라는 문구를 삽입했다. 중국이 '대만 포위' 훈련을 벌인 것은 작년 10월 라이칭더 대만 총통의 건국기념일(쌍십절) 연설을 문제 삼아 수행한 '연합훈련 리젠(利劍·날카로운 칼)-2024B' 이후 6개월 만이다. 중국군은 작년 12월 라이 총통이 미국령 하와이·괌을 경유해 남태평양 도서국 순방에 나서자 수십척의 군함·경비선을 동원해 압박했으나 공식적으로 '훈련'이라고 발표하지는 않았다.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네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네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잠언 5:1-2,22-23)

하나님, 훈련의 명목으로 육·해·공군 등 모든 군사력을 동원해 대만을 포위하는 전개 방식으로 대만에 대한 공개적인 군사적 위협을 가하고 있는 중국을 꾸짖어 주십시오. 이러한 행보에 대해 국제사회의 강한 비판이 있었음에도 죄의 줄에 매여 같은 일을 반복하는 중국 위정자들의 미련한 마음을 낮추시고 겸손케 하옵소서. 이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만과 중국 교회가 주의 뜻이 두 나라에 임하도록 힘을 다해 간구하게 하시고, 주님의 지혜를 지키는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게 하소서.

▲ 미국 리치먼드 대학, 퀴어 바이블 강좌 개설 "논란"

미국 버지니아주의 리치먼드 대학교가 성경을 엘지비티(LGBTQ+) 중심의 관점에서 탐구하는 새로운 종교학 강좌를 개설해 논란이 일고 있다고 크리스천포스트가 최근 보도했다. 이 강의는 '퀴어 바이블(Queer Bible)'이라는 이름으로 개설됐으며, 성(sexuality), 성 정체성, '성경 속 퀴어 쾌락' 등을 중심 주제로 삼아 성경을 퀴어 이론과 섹슈얼리티 관점으로 재해석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의를 맡은 리애논 그레이빌(Rhiannon Graybill) 교수는 과거 여러 논문을 통해 성경의 급진적 해석을 시도해 왔다. 예를 들어, 열왕기하에서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되살리는 장면을 분석한 논문에서는 엘리사와 아이 사이에 성적 접촉 암시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녀는 엘리사의 입, 눈, 손바닥 등의 신체 접촉이 "일종의 속삭이는 마법"처럼 묘사될 수 있으며, 엘리사가 아이 위에 몸을 눕히는 자세가 성적이거나 친밀한 접촉을 시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성경을 퀴어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은 리치먼드 대학교 외에도 웰즐리 대학(Wellesley College), 플로리다 중앙대학교(University of Central Florida) 등에서 이뤄지고 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히브리서 10:29)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는 성경을 진리에 반하는 퀴어 관점으로 해석하는 과목을 개설해 진노하시는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이 행하는 대학들을 꾸짖어 주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그들 속에 없어 그리스도를 짓밟고 우리의 죄를 깨끗케 하신 십자가를 부정하며 성령을 욕되게 하는 어리석은 마음에 복음의 빛을 비춰주십시오. 그래서 죽음 후에 받을 무서운 형벌이 있음을 깨닫고 죄에서 돌이키게 하소서. 복음을 파수하는 미국 교회를 통해 거짓이 부끄러움을 당하며 주의 말씀 더욱 흥왕케 되어 미국에 놀라운 구원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기도정보제공: 기도24·365본부 prayer@prayer24365.org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기독 쿠키-조와 힌두 메이테이 간 충돌로 250명 사망…5만 명 피난길

인도 북동부 마니푸르(Manipur)주에서 기독교인 쿠키-조(Kuki-Zo) 부족과 힌두교도 메이테이(Meitei) 부족 간에 민족 폭력이 재점화되면서, 최소 250명이 사망하고 5만 명 이상이 피난길에 올랐다고 국제크리스천컨선(ICC)이 25일 보도했다.

최근 양측의 충돌은 3월 18일 추라찬드푸르(Churachandpur) 지역에서 발생했으며, 이 지역은 쿠키-조 부족의 거주지로 알려져 있다. 당시 51세의 메이테이 부족 남성이 사망하고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폭력 사태의 원인은 2023년 마니푸르 고등법원의 판결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법원은 다수 힌두교인 메이테이 부족에게 ‘지정 부족’(Scheduled Tribe) 지위 부여를 권고했다. 인도 헌법상 지정 부족은 교육·취업·정치적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소수 기독교계 쿠키-조 부족은 강하게 반발했다.

메이테이가 이미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정 부족 지위까지 얻게 되면, 쿠키 거주 지역의 토지와 자원에 대한 메이테이의 접근권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이 판결은 이후 인도 대법원의 비판을 받았으나, 이미 시작된 폭력은 걷잡을 수 없이 번졌다.

당시 인도 중앙정부와 마니푸르주 정부는 모두 나렌드라 모디 총리의 바라티야 자나타당(BJP)이 운영하고 있었다. 사태가 장기화되자, 2025년 2월 13일 인도 연방 정부는 마니푸르주에 대통령 통치를 선포했다. 이에 따라 주 수석장관이던 메이테이 출신의 N. 비렌 싱은 사임했다.

표면적으로는 민족 간의 충돌로 보이지만, 현지에서는 뚜렷한 종교적 박해의 양상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최근의 충돌로 기독교계 쿠키-조 부족의 교회 400곳이 약탈과 방화로 파괴됐으며, 여성에 대한 폭력과 강간 피해 사례도 보고됐다.

보안군은 현재 지역 내에서 ‘플래그 행진’(flag march)을 실시하며 추가 폭력 사태를 억제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쿠키 공동체의 피난민들은 보다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 중이며, 지역 정치인들과 부족 단체들도 평화를 촉구하고 있다.

마니푸르주 의회의 정지된 의원 6명은 공동 성명을 통해 “우리는 지금 우리 역사상 가장 중대하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권리를 위해 어깨를 맞대고 함께 싸워왔다. 오해를 풀고 공동체와 후손들을 위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모두 기독교적 용서의 가치를 되새기며 평화를 추구하자”고 밝혔다(출처: 복음기도신문 종합).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시편31:22-24)

하나님, 인도 마니푸르주에서 발생한 종족 간의 분쟁으로 많은 사상자와 이재민이 발생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의로우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폭력과 분열을 조장하며 평화를 깨트리는 악한 자의 간계를 파하시고 차별을 일삼는 정치 지도자들에게 돌이켜 국민을 공평하게 다스릴 수 있는 정직한 마음을 주소서. 환란과 박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십자가 사랑의 은혜를 입은 교회가 사랑과 선을 행하며 공정과 정의를 나타내실 주님을 바라고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하옵소서.

한주간 긴급기도 [소그룹2]

▲ 시리아 과도정부, 여성·기독교인 포함한 개각 단행…국제사회 우려 불식 의도

신구 세력 간 무력충돌로 유혈사태를 겪은 시리아 과도정부가 개각을 단행하면서, 여성이자 기독교인인 힌드 카바왓 사회노동부 장관을 첫 여성 각료로 발탁했다고 연합뉴스가 30일 AFP통신을 인용해 보도했다. 아메드 알샤라 시리아 임시대통령은 29일 새로운 과도정부 내각 명단을 발표했다. 외무장관과 국방부 장관 등 요직을 장악한 알샤라 대통령의 측근 그룹이 유임된 가운데, 카바왓 장관은 기독교 출신의 여성이자 소수자로서, 개각의 키포인트로 꼽힌다. 이는 시리아의 통합 가능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인사로 해석된다. 한편, 시리아 과도정부가 이슬람법을 국가 근간으로 삼고 있는 과도 헌법을 발표해 기독교인 박해가 우려되고 있다. 과도 헌법은 여성과 소수 종교인의 권리를 보호하겠다는 정부의 기존 입장을 반영하고 있으나, 동시에 대통령에게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고 이슬람법을 국가의 근간으로 삼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그러나 헌법은 또한 "모든 신성한 종교"에 대한 보호를 선언하며, 국민이 공공질서를 해치지 않는 한 종교 활동을 보장한다고 명시하지만, 이 조항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될지는 미지수이다.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으므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잠언 8:10-11)

하나님, 기독교인 여성을 장관으로 발탁해 국제사회를 인식하는 듯한 행보를 보이지만 한편으론 이슬람법을 국가의 근간으로 삼는 헌법 발표로 논란이 되는 과도정부를 의탁드립니다. 이러한 개각이 명목상의 구실이 되지 않게 하시며, 이슬람을 위한 헌법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위정자들에게 선한 마음을 주옵소서. 특별히 기독교인 장관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주셔서 정금보다 주님의 훈계와 지혜를 귀히 여기게 하소서. 이를 통해 박해받는 기독교 공동체가 보호받고 마음껏 주님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 영국 법원, 성중립 대명사 거부한 교사에 벌금 4만 유로 강제 인출 명령

아일랜드 법원이 트랜스젠더 학생의 선호 대명사 사용을 거부한 교사에게 세 번째 징역형을 선고하고, 미납 벌금 중 4만 유로(한화 약 6,380만 원)를 그의 은행 계좌에서 강제 인출할 것을 명령했다고 영국 크리스천투데이가 지난달 28일 보도했다. 복음주의 기독 교사 에녹 버크(Enock Burke)는 웨스트미스에 위치한 아일랜드성공회 계열 윌슨병원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던 중, 2022년 8월 트랜스젠더 학생의 새 이름과 성중립적 대명사 사용을 거부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학교 측은 이에 대해 정직 처분을 내렸지만, 버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해서 출근을 시도했다. 학교의 출입 금지 명령을 어긴 버크는 2022년 9월 법정 모독죄로 체포돼 수감됐으며, 이후 두 차례 추가로 법원 명령을 위반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현재 버크는 7만 9,100유로(약 1억 2,600만 원)의 법정 벌금을 미납한 상태다. 이에 아일랜드 고등법원은 최근 은행에 7일 이내로 그의 계좌에서 4만 유로(약 6,380만 원)를 법원 서비스 계좌로 이체할 것을 명령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느헤미야 1:4-5)

하나님, 영국에서 성경적 세계관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던 에녹 버크에 대한 법원의 벌금 강제 인출 명령 소식에 주의 긍휼을 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범법자로 선고하는 법원과 위정자들을 책망하여 주시고 이런 불의함에서 돌이키게 하소서. 법적 박해가 계속되는 영국의 성도들을 더욱 믿음 위에 든든히 세우사 느헤미야와 같이 이 땅이 주께 범죄함을 자복하며 애통하게 하소서. 여호와를 사랑하며 주의 계명을 생명처럼 지키는 교회를 통해 이 나라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 주의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기도정보제공: 기도24·365본부 prayer@prayer24365.org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기독 간호사 협회, 세미나 통해 선교적 소명 재확인

스페인 기독 간호사들의 전국 네트워크인 ‘스페인기독간호사협회(The Spanish Christian Nursing)’가 3월 6-9일 북부 마린(폰테베드라)에서 제19차 전국 모임을 개최했다. 이번 모임은 갈리시아 지역에서 처음 열린 행사로, 약 30명의 기독교인 간호사들이 참석해 선교적 소명을 다졌다.

올해 주제는 ‘피니스테레(Finisterrae, 라틴어로 땅끝):땅끝까지’로, 기독교인 간호사들이 선교적 소명을 가지고 땅끝까지 예수님의 성품으로 사람들을 섬기겠다는 의미를 담았다. 페르난도 라모스 협회 회장은 “회원 간 유대감을 강화하고 향후 몇 년간의 전략을 논의하는 것이 이번 모임의 중요한 목표”라고 설명했다.

이에 협회는 ‘월드 카페(a world-café)’와 여러 세미나, 그리고 그룹 모임을 통해 참석자들이 다양한 관점에서 생각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협회는 스페인 전역 간호사들을 하나로 모으고, 생명윤리 및 환자 돌봄에서 기독교 신앙을 실천하는 방법을 논의하는 국제적 운동과도 연계하고 있다.

한편, 후안 카를로스 노갈 사무국장은 1980년대 마드리드에서 거주한 스코틀랜드 출신의 한 조산사의 격려로 협회가 시작됐으며, 이후 수년간 성장해 2010년부터는 전국 회의를 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협회의 도전 과제 중 하나는 복음주의 영역뿐만 아니라 스페인의 공공 보건 의료 시스템에서도 협회의 입지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회장 마리아 로페스-파라는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기독 간호사들이 윤리적·생명윤리적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신앙을 굳건히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새로운 시대적 도전에 맞서고 있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도 빛과 소금이 되어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자고 서로를 격려하기 때문에, 이번 모임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폰테베드라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몬초 라고스는 “기독 간호사들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보호하며, 생명 존중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한다”며, “죽음을 맞이하는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라모스 회장은 “우리는 간호 분야에서 세 가지 핵심 가치인 탁월성, 정직, 그리고 청지기 정신을 구체화하고 표현하려고 한다”며 이번 모임의 핵심을 강조했다(출처: 복음기도신문 종합).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로마서 11:5,29)

하나님, 스페인의 기독 간호사들이 함께 모여 선교적 소명을 다지며 주님이 보내신 환자들과 생명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함께 마음을 모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동성 결혼과 안락사 합법화로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 이들이 진리의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음을 믿고 더욱 주를 바라게 하소서. 기독 의료인들과 교회가 사랑으로 연합하여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오기까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내하게 하시고 이를 통해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한주간 긴급기도 [소그룹3]

▲ 미얀마, 반군의 한 달 휴전 선언에도 군정은 공격 계속

미얀마가 7.7 규모 강진으로 초토화된 가운데 핵심 반군이 군사 작전 중단을 선언했으나 군정은 이를 공격 준비라고 주장하며 반군에 대한 공격을 이어가고 있다고 2일 연합뉴스가 로이터통신을 인용해 보도했다. 소수민족 무장단체 연합인 '형제동맹'은 지진 구조 지원을 위해 한 달간 방어 활동 외에 군사 작전을 중단한다고 1일 밝혔다. 2023년 10월 말 미얀마민족민주주의동맹군(MNDAA), 타앙민족해방군(TNLA), 아라칸군(AA)은 형제동맹을 결성해 합동 작전을 시작했고 샨주 영토 대부분을 장악했다. 이후 시민방위군(PDF)과 다른 지역 무장단체들이 가세해 총공세를 펼치며 군정은 수세에 몰렸다. PDF도 지난달 30일 지진 피해 지역에서 2주간 방어를 제외한 모든 공격 활동을 중단하며 휴전을 선언했다. 그러나 군정 수장인 민 아웅 흘라잉 최고사령관은 반군이 교전 중단 기간동안 부대를 재편성과 군사 훈련을 하고 있다며 반군 측의 휴전 선언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니이다(시편 10:14)

하나님, 미얀마에서 강진으로 도시 전체가 파괴돼 생사가 오가는 긴급한 상황 속에서도 내전을 멈추지 않는 어지러운 이 나라를 주께 의탁드립니다. 재난 구조에 쏟아야 할 에너지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에 사용하며 포악을 부리는 군정의 악행을 꾸짖어 주시고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갚으시는 두려우신 주 앞에 서게 하소서. 전쟁과 재난으로 외롭고 가련한 처지에 있는 미얀마에 은혜의 복음을 계시하사 환난 가운데 주를 의지하여 자신의 백성들을 돌보시는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케 하옵소서.

▲ 이란 기독교인들, 미국 망명 신청에 파나마로 추방…출국 명령에 갈 곳 없어

기독교로 개종했다는 이유로 본국에서 사형 위기에 처한 이란 기독교인들이 미국 망명 과정에서 파나마로 추방된 후 30일 내 출국 명령을 받았다고 국제크리스천컨선(ICC)이 전했다. 이란 출신 기독교인 아르테미스 가셈자데는 튀르키예 여행 중 우연히 교회를 방문한 것을 계기로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됐으며, 이후 이란 내 지하교회 네트워크에서 신앙을 키워갔다. 그녀가 참여한 성경 공부 모임의 멤버들이 체포됐고, 많은 교회 모임이 당국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이후 당국의 감시를 피해 미국 망명을 시도했다. 그러나 미국 이민 당국은 그녀를 파나마로 송환했고, 현재 가셈자데와 동행자들은 파나마 세인트빈센트(Saint Vincent)의 한 수용소에 구금돼 있으며, 현장은 과밀하고 비위생적인 환경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파나마 정부로부터 30일 내 출국을 명령받았지만, 갈 곳이 없는 상황이다. 이란은 기독교 개종자를 심각하게 탄압하는 신정 국가이다. 이런 상황에서 개종한 이란 국민이 본국으로 송환되는 것은 '강제송환 금지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 유엔은 이 원칙이 모든 이주자에게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이사야 32:17-18)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한 이후 당국의 감시를 피해 망명을 시도했지만 추방되어 다시 본국에 송환될 위기에 처한 이란 기독교인들을 보호해 주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그들의 영혼이 낙심치 않도록 믿음을 견고케 하시고 갈 곳이 없는 막막한 상황을 돌보사 주께서 예비하신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로 인도해 주옵소서. 지금도 심각한 박해 가운데 있는 이란 교회가 고난 중에도 주의 말씀으로 흥왕하고 있음을 믿사오니, 주님이 허락하신 부흥을 통해 이 땅에 공의의 열매가 맺어져 화평을 얻게 하소서.

기도정보제공: 기도24·365본부 prayer@prayer24365.org